

민주 “尹, 대화제안하면 참석...與, 원구성 마무리 협조를”

“尹, 자평하고 국정 운영에 변화 가져와야”
“인재 육성 시스템 추진·건강한 당원 문화”
“먹고사는 문제 성과내야...민생혁신 중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중이라도 원내 대표 회담을 열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지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로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이 문제 불통이 국회로 튀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부 권력 다툼에 집중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런 혼란 때문에 여야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원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박홍근 원내대표와 제 구상은 이번 주말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국회 정상화였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협상 진척이 전혀 없다는 걱정을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가 복잡한 건 이해하고, 수습이 먼저인 것도 이해하지만 민생을 돌봐야 할 국회의 일정이 늦어지는 건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취임 두 달이 됐다. 지금쯤 한 번 스스로 평가하시고 국정 운영 방향에 변화를 줘 가져와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며 “대통령은 민생에 소홀하고 대통령 배우자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부로 진행하는 이 과정,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보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는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방향 변화를 요청했는데, 직접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이어진 물음에는 “진짜 위기 대응을 같이하고 싶다”며 “제가 제안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그런 대화를 제안하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당의 변화·혁신 과제와 관련해서 “당의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만들고 추진하겠다. 그게 혁신 과제”라며 “인재는 선거 때 영입도 해야 할 일이지만, 당이 젊은 청년·여성 인재 전문가를 당 차원에서 발굴·육성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정당 내 인재를 육성하고 키우는 싱크탱크를 만들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또 다른 과제는) 건강한 당원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팬덤 문화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문제는 분열적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소통 방식”이라며 “최근 한 당원이 박지현 전 위원장에게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결국 터질 게 터졌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당원들께서 당을 사랑해주고 당이 잘되도록 열성적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극단적 소통 방식은 지양해달라는 부탁을 오늘 다시 말씀드리다”며 “당원 여러분께서도 답답해서 그렇겠지만, 최대한 예의 갖춘 의견 개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당원정원제도 도입에 대해서 “다음 주 초반 중에 보고드릴 생각”이라며 “당원들이 개별 의원에게 문자를 안 보내도



당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소통로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자성과 관련, “무능·독선·오만 이미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거기서부터 유능해져야 한다”며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내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게 중요 혁신 과제다. (동일 지역) 3선 (연임) 제한 등 정치개혁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 민생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당내 일부 있는 나쁜 문화 분열, 갈등, 증오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 룰 개정 관련 본인들의 견해가

다들 때 지도부 면담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장으로 먼저 달려가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당내 소통이 가능한데 왜 기자회견장을 먼저 가나. 이런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을 두고는 “임기제면 임기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만두나. 국회가 제도 개선 문제로 접근해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반복할 거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가 되면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출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이재명 “당원 바뀌어야 정당 바뀐다”

‘민주당원 가입’ 지지자 글에 “또금만 더 해두때여”



이재명 의원은 전날 지지자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을 이어가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정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당원이 바뀌어야 정당이 바뀐다”며 “계속 같이 노력하자”고 적었다. 그는 이날 지지자들의 SNS 글에 직접 답변을 달기도 했으며, 당원 가입을 적극 독려했고 나눴다. 한 지지자가 ‘저희 가족 전부 민주당원 가입

할 때 추천인에 이재명 쓰고 입당했다’고 전하자, 이 의원은 “또금만(조금만) 더 해두때여(해주세요)”라고 답변했으며 “대선 직후 10명 이상은 입당시켰다”는 또 다른 지지자의 글에도 “큰일 하셨다 감사하다. 조금만 더 (해주시라)”라고 적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SNS에서 ‘죄에(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종류를 묻거나, ‘술 한 잔 기울이셨나’라는 질문 등에도 답글을 달며 활발히 소통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10일 “이 의원이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당원 가입을 호소하는 이른바 ‘발걸이’를 했다”며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여러 당내 현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탈당을 주장하는데, 이 같은 네거티브 방식보다 당원으로 더 많이 가입해 주장을 관철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임을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유나기자

아베 사망, 日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한일관계 개선 ‘걸림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총격을 받기 직전 일본 서부 나라(奈良)에서 선거연설을 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연설 도중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멎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당해 사망하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 전

아베 피격 사망 후 일본 정부 동향 촉각
참의원 선거 후 日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총리가 원했던 평화헌법 개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경우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벌였던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 우익을 대표하던 아베 전 총리가 숨지면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함에 따라 기시다 총리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외무상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인물로 일본 우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

망도 있다. 아베 전 총리 사망을 계기로 강경 우파들이 결집하면서 한국에 대한 자국적인 행동과 언급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의석을 늘릴 경우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따른 동정표가 몰릴 경우 일본 의회가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미국 정부가 원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이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